

한라시론



유동형
진로·취업컨설팅 편집장 대표

우리의 위기극복 DNA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국민 모두 걱정이 크다. 제한적 조치들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서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위기도 잘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민족은 타민족과 달리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국난극복 DNA가 있기 때문이다. 파벌과 계파 간의 이견으로 내부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외부적인 국난이 발생하면 일시에 단결해 문제를 해결해온 민족이

다. 자잘한 싸움까지 하면 약 936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대략 1000번이라고 하고 5000년 역사 기간을 나누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은 꼴이다.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런 경험을 통해 나온 인사말이라고 생각된다. 5년마다 전쟁을 겪었으니 '안녕'하기가 그만큼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이런 1000번의 전쟁경험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로 하나가 돼서 극복해냈다. 국난극복 DNA가 위기극복 DNA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해결해 나가는 전사적인 민족성을 갖게 됐다고 본다. 일본의 한 석학은 진취성이 부족한 일본 젊은이들을 보면서 '일본은 미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일본회사에서 외국 지사에 직원을 보내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그냥 편한 국내 근무를

원한다고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험이나 외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상당히 도전적이다. 회사에서 지사 파견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비로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기업 환경도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런 변화 속에서 늘 위기가 찾아온다. 똑같이 위기를 겪을 때, 극복하고 흥하는 민족과 극복하지 못하고 국운이 기울어 가는 민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쓰나미 같은 대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와 풀어나가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코로나로 세계적인 스타 국가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우리나라다. 국가가 국난을 극복하기도 힘들지만, 개개인도 위기를 극복하기도 힘들다. 항공사에 다니는 직원이 회사 구조조정 계획이 있어 고민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 월세와 생활비 때문에 시름이 크다고 한다.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여름 한 철 장사인데 코로나로 이번 여름 장사를 망쳐 걱정이라고 한다. 대학교수인 분도 급여가 30% 삭감돼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들다고 한다. 필자 또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도 국가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어 위안이 된다. 일본 -6.0%, 미국 -7.3%, 영국 -11.5%에 비해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발휘된다. 이번의 위기를 이겨내면 다음에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우리의 강점인 위기극복 DNA를 믿어보자.

편집국 25시

정치인의 말



이상민
행정사회부 차장
hasm@ihalla.com

원 회를 지사의 '말'은 종종 이슈가 된다. 최근엔 그런 일이 부쩍 잦아져 입만 떠돌아 다니는 것 같다. 지난달 원 지사의 입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SNS에서 어린이집 부실 급식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전 날 보육노조가 부실 급식 사진을 공개해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자 원 지사가 "화가 난다"며 곧바로 반응한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김없이 뉴스로 소비됐다. 원 지사는 이를 뒤 SNS에 "조리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영상까지 찍어 올렸고, 또 기사로 소개됐다. 이 발언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였다. 제주도가 부실 급식 논란에 강력 대처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과

뉴스-in

"부적격 내려도 임명하면 그만인 것을"

제주도의회 내 답답함 표출

○...지역사회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답답함이 표출.

26일 열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면 뭐하나. 부적격 내려도 (원 지사가)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안타까움을 표명.

한편 이날 김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임명이 강행될 경우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화폐자금 관리 선정 기싸움

○...도내 금융권이 제주지역화폐 자금 관리 금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싸움을 전개하고 있어 눈길. 제주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은 2022년까지 3700억원 규모로 제주도가 발행할 예정인 제주지역 화폐 발행·운영 전문가 선정

을 앞두고 불특정인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자사에 피해가 우려되는 보도에 대해 적극 방어.

도내 한 금융권 인사는 "제주지역화폐 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 신규고객 유치 등 지역내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사활을 거는 것 같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개인정보 노출' 진화 안간힘

○...주민세 고지서 발송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조기 진화에 안간힘.

김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피력한 후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점검·개선 및 개인정보교류·확인 절차 매뉴얼화와 함께 감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빌어 사과의 점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뜻을 피력. 현영종기자

사설

신규 확진 잇따라 'n차 감염' 우려된다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간간이 한 두 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하루 새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합니다. 확진자들이 코로나19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지역내 마트와 식당을 방문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도 자칫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제주 29번·30번·31번·32번)가 발생했습니다. 또 25일에 2명(제주 33번·34번)이 추가돼 이틀만에 제주에서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6명의 확진자 중 4명은 수도권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2명은 2차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주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방역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갑자기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6명 모두 수도권발 감염자로 분류되고 있어 격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이 제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에 수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역당국의 노력 못잡게 '정경제주'를 지켜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부지역 심각한 지하수 오염, 대책 뭘가

수 년전부터 제기돼 온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심각성이 계속 제기돼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애월 한림한계에 이어 대정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대정읍 지역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와 세균 이하 대부분 지역서 오염되고, 해염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질산성 질소 함유량의 경우 먹는 물의 허용 기준치인 10mg/l에 다다른 7~8mg/l을 보였는가 하면 대정농공단지내 지하수 수질도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한 수준이 검출됐습니다. 대정읍 관내 서림수원지가 지난 2012년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성 질소로 폐쇄된 후에도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매년 지하수 관리 강화를 외쳐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한림 한계 지역

관정을 중심으로 한 도보건환경연구원 실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병행성 세균과 질산성 질소 기준치 초과 검출로 문제됐습니다. 지하수 수질 오염이 가장 높은 한림지역은 지난해 농업 생활용(개인) 관정 및 먹는물용 공공관정 모두 대상 전수조사결과 200m 이하 대부분 지역서 오염되고, 해안서 떨어진 지역 관정은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게 검출됐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수질 정화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만큼 조기에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데도 행정의 지하수 수질대책은 안보입니다. 주 원인으로 지목된 양분 배출 분뇨와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정 제주의 지하수는 국민의 생명수입니다. 깨끗한 물과 청정한 환경을 최우선정책 순위로 지향한다는 제주도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부고
이기호(콜로세움) 아버지 전주이공 성훈(콜로세움·아이더 대표·향년 58세)께서 서거 2020년 8월 25일 17시 4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8월 27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8월 28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아하야홀 선영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순욱(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들 강세환 며느리 박미선
세은 오명희
딸 강계선 사위 김상철
미선 현상현

별초
전문별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윤성호(1977. 1. 29생)
최후주소: 제주시 원도형 2길 29-5, 508호(노형동)
상기자는 2020년 8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8월 19일 제주지방법원 2020년단4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06길 23(독산동)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윤병환, 양복순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